육아정책연구
제6권 제1호(2012. 6.) 125~141

모의 후속출산계획에서 한자녀 취업모의 일반적 변인에 따른 차이와 부모됨이 미치는 영향*

이진화[1] 조하나[2] 최혜윤[3]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모의 후속 출산계획에서의 한자녀 취업모의 일반적 개인 배경에 따른 차이와 부모됨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2009년) 자료의 한자녀 취업모 296명이다. 자료 분석은 교차분석과 이항로짓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자녀 취업모의 후속자녀 출산계획은 부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됨의 하위 영역에서 부부갈등, 자녀의 정서적·도구적 가치, 양육스트레스가 한자녀 취업모의 후속출산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부부갈등과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서적·도구적 가치가 낮을수록 후속출산계획이 낮아졌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자녀 취업모의 후속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그들의 부모됨과 시민의식 함양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부모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부모됨, 후속출산계획, 저출산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의 초저출산율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력 제고 노력이 국가의 최우선 정책적 과제 중 하나가 되었고(정성호, 2010),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이슈들과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김민주, 2010).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는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하려는

* 본 논문은 2011년 '육아정책연구원 아동패널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였음.
1) 숭의여자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교신저자/ jinwhayu@sewc.ac.kr
2) 이화어린이연구원 연구원
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 박사수료

노력이 가장 우선이다. 저출산의 원인을 바라보는 입장은 다양하다(류연규, 2005). 먼저 류연규(2005)는 저출산이라는 현상을 바라보는 다소 다른 입장들에서 원인분석을 시도하였다. 첫째는 저출산 그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는 관점으로 생산 인구의 감소로 인해 뒤이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인 변화를 우려하는 입장이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저출산 현상 그 자체보다는 저출산이라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가족(여성)이 가지는 자녀 출산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녀 출산에 따른 부담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사회문화적인 구조에서부터 생각해보는 입장이다.

저출산의 또 다른 중요 원인으로는 자녀에 대한 의미의 변화이다. 자녀를 가계 생산 활동의 계승이라는 투자재의 개념에서 벗어나 애정의 대상이라는 소비재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용복·이소희, 2004). 즉 과거에 자녀의 가치를 가족 경제를 위한 '노동'의 측면에서 부여하였다면, 이제는 사랑과 보살핌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며 자녀는 부모의 투자를 받는 대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투자재의 개념에서는 다자녀 출산이 유리한 면이 있었으나 후자의 개념으로 변화되어 오늘날에는 다자녀 보다는 1~2자녀를 가장 적정한 자녀수로 간주하게 만들었다(이연주·김재일, 2009).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상황이 1997년의 IMF와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특히 젊은 세대의 고용불안정에 대한 위기감은 저출산율을 더욱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젊은 층의 노동 시장 고용불안정에 대한 위기의식은 결혼으로 대표되는 가족구성결합을 늦추게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저출산을 더욱 촉발시킨다고 하였다(김민주, 2010; 나유미·김미경, 2010; 신효영·방은령, 2009).

양성평등 개념의 확산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되고, 결혼보다는 자신의 일을 통한 자아실현이 우선시되어 자연적으로 결혼연령이 늦어진다는 점(박수미, 2008)과 기혼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허약하다는 점 역시 저출산의 원인으로 본다(염명배·김경미, 2011).

이와 같은 저출산의 원인은 곧 높은 출산율의 장애요인이므로 이를 제거 혹은 약화시키지 않고서는 낮은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저출산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프랑스, 덴마크, 일본 등의 선진 국가들의 정책을 분석한 비교 연구들(김형준, 2008; 류연규, 2005; 이선주·박선영·김은정, 2007; 이재경·조영미·이은아·유정미, 2005; 장동호, 2009)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사회경제적 및 가족구조적 형태의 특성과 출산행태를 분석한 연구들(김홍배·최준석·오동훈, 2008; 염명배·김경미, 2011; 정성호, 2010; 차승은,

2008; Matysiak, 2009), 그리고 다자녀 출산을 위한 여성들의 출산결정 동기들을 살펴본 연구들(김홍배·최준석·오동훈, 2008; 신혜원·최평섭·김의준 2009; 신효영·방은령, 2009; 이미란, 2010; 이미란, 2009; 차승은, 2008; 한은주·박정윤, 2006)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위의 선행 연구들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우리 현실에 적합한 저출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구사회에서의 정책들을 학습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나, 이들 나라들은 우리와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졌으므로 맹목적인 출산정책의 답습보다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지원정책 및 사회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고용불안 등의 경제적 상황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적인 취업환경 제공, 금융 및 조세 혜택 등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김형준, 2008; 신혜원·최평섭·김의준, 2009; 장동호, 2009). 셋째, 육아지원정책이 자녀 출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의 경제생활과 가정생활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효과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이미란, 2009). 넷째, 국가차원의 지원정책들이 나열식의 백화점 형태로 운영되기보다는 연령별, 직업군별,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전문점식 형태인 맞춤형으로 지원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염명배·김경미, 2011; 유계숙, 2007; 이연주·김재일, 2009; 정성호, 2010; 한은주·박정윤, 2006). 마지막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현재 가임기의 여성들과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인 교육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시민교육의 차원으로 출산에 대한 교육과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차승은, 2008).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밝혀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써의 대부분의 연구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양성평등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나, 미혼 및 기혼여성 대상의 정책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부모로서의 역할 수행, 부모의 양육관련 인식 및 태도, 실제 그리고 부부의 결혼만족도 등 부모됨(parenthood)과 자녀출산 관계를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모의 부모됨과 출산 관계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실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생활에서 자녀의 필요성 즉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부모로서의 기쁨, 성취감 등이 경제적 지원이나 공적·사적 서비스 지원 못지않게 후속 출산에 직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됨의 의미는 자녀출산이라는 생물학적이면서 규범적인 측면이 강조된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 와서는 결혼행태 및 가족구조 결합의 인식변화 등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안은진·최효진·유계숙, 2007; 조성연, 2007). 부모됨은 각 개인마다 달라서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조성연, 2007). 부모됨의 개인적 의미는 자녀는 부모에게 신체적·정서적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는 존재라는 것이다. 조성연(2007)은 부모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를 잇게 되며 건강한 성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자녀를 통해 자신의 소망을 대리 충족시키는 등 부모가 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달성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얻고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Veevers(1973)가 바라본 부모됨의 사회적 의미는 두 가지로 하나는 결혼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사회 구성원을 충원시키는 시민으로서의 의무 실행의 의미와 다른 하나로는 자녀를 가지고 부모됨을 실천함으로 인해 부부관계의 증진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조성연, 2007, 재인용). 이와 같은 부모됨은 후속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예측되어 이를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 이정원(2009) 등의 선행 연구에서는 한자녀 취업모의 후속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육아지원정책의 제공과 함께 자녀 및 결혼의 가치관 등 부모됨과 관련된 요인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부모됨에 포함되는 다양한 영역 즉 부부관계, 자녀관계, 양육관계 등과 한자녀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단위의 사회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한자녀 취업모의 개인 배경 및 부모됨의 특성과 후속출산계획과의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 출산을 위해 실천적인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한자녀 취업모의 일반적 특성(가구별 월평균소득, 배우자의 연령, 학력 및 직업, 취업모의 학력 및 연령)에 따라 모의 후속출산계획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한자녀 취업모의 부모됨이 모의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2차년도(2009년) 자료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 선정한 한자녀 취업모인 296명이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으로는 자녀의 성별, 월가구 평균 소득(종합), 부모의 연령과 학력, 부의 직업(대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경우 현재 직장에 근무 중이지만 모의 직업 분류 선택에 대해 직업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응답한 경우는 296명 중 24명(8.1%)에 불과하였고, 272(91.9%)명이 무응답 혹은 결측값으로 나타나서 연구문제의 변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변인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변인

(N=296)

구분	범주	빈도(%)	구분	범주	빈도(%)
모 연령	26세 이하	15(5.07)	배우자 (부) 연령	30세 이하	64(22.61)
	27~30세 이하	126(42.57)		31~34세 이하	137(48.41)
	31~34세 이하	116(39.19)		35~38세 이하	66(23.32)
	35세 이상	39(13.18)		39세 이상	16(5.65)
모 학력	고등학교 이하	45(15.31)	배우자 (부) 학력	고등학교 이하	44(15.27)
	전문대학(기능대학)	73(24.33)		전문대학(기능대학)	60(20.83)
	대학교	148(50.34)		대학교	148(51.39)
	대학원이상	28(9.52)		대학원 이상	36(12.50)
자녀 성별	남아	148(50.00)	배우자 직업 (대분류 기준)	관리자	17(6.30)
	여아	148(50.00)		전문가/관련 종사자	74(27.41)
월 가구 평균 소득 종합	100만원 이하	2(0.68)		사무종사자	90(33.33)
	200만원 이하	25(8.56)		서비스/ 판매업자	39(14.45)
	300만원 이하	52(17.81)		기능원/관련기능종사자	30(11.11)
	400만원 이하	84(28.77)		장치, 기계조립 종사자	14(5.19)
	500만원 이하	76(26.03)		기타(단순노무직 등)	6(2.22)
	510만원 이상	53(18.15)			

주: 월가구 평균 소득(종합)에서 4명, 부 연령에서 13명, 모 학력에서 2명, 부 학력에서 8명, 부 직업에서 26명이 각각 무응답으로 나타남.

2. 측정도구

한자녀 취업모의 부모됨의 특성으로는 부부관계, 자녀기대, 사회적 지원, 양육관련(양육스타일, 양육지식,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관련(취업모 자신의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먼저 부부관계는 부부의 결혼만족도 4개 문항과 부부갈등 8개 문항의 5점 평정척도이다. 결혼만족도 도구는 Chung(2004)이 개발한 RKMSS(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수정하였으며 부부갈등 도구는 Markman & Blumberg(2001)의 부부갈등척도를 수정한 정현숙(2004)의 도구를 수정·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도구는 강희경(1998)과 홍성례(1995)의 연구에서 사용된 남편의 가족역할 수행 척도의 하위영역 중 하나인 부모역할 영역 4문항이다.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별 신뢰도 Cronbach α 는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각각 .921,과 .900으로 나타났다.

자녀 기대는 부모가 보는 자녀가치와 자녀 미래기대에 해당되는 2가지 도구를 통해 측정되었다. 부모의 자녀가치는 이삼식 외(2005)의 도구를 5점 평정척도로 수정하였으며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적 자녀가치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57이었으며 각각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정서적 가치 .664와 도구적 가치 .722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녀미래기대는 NWEC(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2007)의 6개 문항이며 4점 평정척도이며 신뢰도 Cronbach α 는 .654이다.

사회적 지원은 이재림, 옥선화(2001)와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현숙(1998)의 사회적 지원 척도를 기초로 제작된 4개 하위 영역의 총 12개 문항의 5점 평정척도이다. 각각의 하위영역별 Cronbach α 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도구적 지원은 .850, 정서적 지원은 .795, 여가적 지원은 .822, 정보적 지원은 .843이다.

양육관련 변인은 양육스타일,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육스타일 측정을 위해 Bornstein, Tamis-LeMonde, Pascual, Haynes, Painter, Galperin, & Pecheux(1996)이 사용한 PSQ(The Parental Style Questionaire) 중에서 신생아 부모에게 해당되는 '사회적 양육유형' 6개 문항을 선택하였다. 양육스트레스 도구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Short Form(PSI-SF), Crnic &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 &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d Scale(MGS)을 기초로 한국형으로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부분 10개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육지식은 MacPhee(2002)의 도구를 수정하였다. 양육지식 척도의 발달원리에 관한 응답 중 정답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13문항으로 오답은 0

점, 정답은 1점으로 처리하였다. 각 도구별 Cronbach α 를 보면 양육스타일은 .834, 양육지식은 .572, 양육스트레스는 .84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관련 문항은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우울감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자기효능감 측정은 PSID-CDS 2차년도 조사(Mainieri, 2006)에서 사용된 'Pearlin Self-Efficacy Scale'을 수정한 4개 문항으로 5점 평정척도이다.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는 Rosenberg(1989)가 개발한 'Rogenberg Self-Esteem Scale'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10문항의 4점 평정척도이다. 마지막으로 우울 측정 도구는 Kessler 등(2002)이 개발한 'K6'을 사용하였으며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평정척도이다. 연구도구 각각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은 .773, 자아존중감은 .856, 우울은 .908이다.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연구문제별로 이루어졌다. 한자녀 취업모의 일반적 특성과 모의 후속출산계획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자녀 취업모의 부모됨과 모의 후속출산계획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변인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서 SAS 9.2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1. 한자녀 취업모 일반적 배경[4]에 따른 모의 후속출산계획에서의 차이

한자녀 취업모의 일반적 배경으로 제시된 모의 연령, 학력, 남편의 연령, 학력 및 직업과 가구별 월소득 평균, 자녀성별과 후속출산계획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단, 카이검증을 통해 유의하게 나오지 않은 가구별 월소득 평균, 한자녀 취업모와 남편의 학력 및 직업, 자녀의 성별 변인은 제외하고 결과를 제시하였다.

4) 모의 연령, 학력, 남편의 연령, 학력 및 직업, 가구별 월소득평균

〈표 2〉 한자녀 취업모의 일반적 배경변인에 따른 후속출산계획의 차이

구분		모의 후속출산계획			계
		낳겠음	안 낳겠음	잘 모름	
부연령 (N=280)	30세 이하	49(77.8)	6(9.5)	8(12.7)	63(100)
	31~34세 이하	81(60.0)	27(20.0)	27(20.0)	135(100)
	35~38세 이하	31(47.0)	20(30.3)	15(22.7)	66(100)
	39세 이상	7(43.8)	5(31.3)	4(25.0)	16(100)
	계	168(60.0)	58(20.7)	54(19.3)	280
	χ^2 검증	$\chi^2(6)=15.65$ $p < 0.05$			
모연령 (N=293)	26세 이하	13(86.7)	0(0.0)	2(13.3)	15(100)
	27~30세 이하	96(74.4)	15(12.2)	18(14.6)	123(100)
	31~34세 이하	59(51.3)	29(25.2)	27(23.5)	115(100)
	35세 이상	14(36.8)	15(39.5)	9(23.7)	38(100)
	계	176(60.5)	59(20.3)	56(19.2)	291
	χ^2 검증	$\chi^2(6)=28.47$, $p < 0.001$			

<표 2>에 의하면, 한자녀 취업모의 일반적 배경 중 후속출산계획에 차이를 보인 변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령이다. 먼저 모의 후속출산계획은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15.65$, $p < 0.05$). 전체 연령에서 자녀를 더 낳겠다는 비율(60%)이 낳지 않겠다는 비율(20.7%)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배우자의 연령이 30세 이하인 경우 77.8%가 후속출산계획이 있으며, 9.5%만이 후속출산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배우자의 연령이 31세 이상인 경우에서도, 후속출산계획이 평균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60.0%, 47.0%, 43.8%) 후속출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후속출산을 하겠다는 비율은 점차 줄어든 반면, 하지 않겠다는 비율과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둘째 자녀를 낳겠다(77.8%→43.8%)는 비율은 크게 낮아진 반면, 안 낳겠다(9.5%→31.3)와 잘 모르겠다(12.7%→25.0%)는 비율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의 후속출산계획은 모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28.47$, $p<0.001$). 한자녀 취업모의 연령이 26세 이하(86.7%)와 27~30세 이하(74.4%), 31~34세 이하(51.3%)의 경우 후속출산계획이 50%를 넘으며, 후속출산계획이 없는 집단보다 출산계획이 있는 집단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모의 연령이 35세를 넘는 경우 후속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39.5%로 후속출산을 하겠다(36.8%)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기 시작했다. 또한 연령이 높아질수록 후속출산계획 여부에 대한 확신은 확고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취업

모의 연령이 27세 이후 높아질수록 후속출산을 하겠다는 비율은 15% 이상씩 감소(74.4%→51.3%→36.8%)하는 반면, 후속출산을 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13% 이상씩 증가(12.2%→25.2%→39.5%)했다.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후속출산계획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자녀 취업모의 부모됨이 모의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한자녀 취업모의 부모됨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출산계획문항은 '낳겠음', '낳지 않겠음' 인 경우만을 고려하여 이분형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후속출산계획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 한해서 부모됨의 변인이 가지는 영향력과 증가율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모형1>은 부부관계와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설명한 모형으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녀를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모형2>는 자녀기대와의 관계를 설명한 모형으로 분석결과 자녀의 정서적 가치가 낮을수록($p<.05$), 자녀의 도구적 가치가 낮을수록($p<.001$)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은 사회적 지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설명한 모형으로 분석결과 사회적 지원과 출산계획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는 양육관련 변인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설명한 모형으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녀를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5>는 어머니관련 변인들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설명한 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6>은 전체 설명변수 투입 후 단계적 변수 선택법으로 최적의 설명변수를 선택한 모형으로서 분석 결과, 부부갈등이 높을수록($p<.01$), 자녀의 도구적 가치가 낮을수록($p<.001$) 출산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 1단위의 변화에 따라 종속변수가 변화되는 정도를 살펴봐야 하는데, <모형1>의 부부관계 영역에서는 부부갈등이 1단위 증가할 때 자녀를 낳지 않을 확률은 8%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의 자녀기대 영역에서는 자녀의 정서적 가치가 1단위 감소할 때 자녀를 낳지 않을 확률은 23%씩 증가하였고, 자녀의 도구적 가치가 1단위 감소할 때 자녀를 낳지 않을 확률 역시 19%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4>의 양육관련변인 영역에서는 양육스트레스가 1단위 늘어나면 자녀를 낳지 않을 확률은 7%씩 증가된다. 부모됨의 하위영역의 모든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모형6>에서는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1단위 증가할 때 자

녀를 낳지 않을 확률은 9%씩 증가하고,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가 1단위 감소할 때 자녀를 낳지 않을 확률은 23%씩 증가하여 후속출산감소 요인이 된다.

〈표 3〉 한자녀 취업모의 부모됨 변인들이 모의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모형	변인	추정계수	표준 오차	-2 Log L	Wald Chi-sqaure	오즈비 추정치	95% Wald Confidence Limits	
1 부부관계 영역	상수	-2.0135	1.4188	239.22	12.1**	1.08	1.015	1.15
	부부만족도	-0.049	0.063					
	부부갈등	0.0774*	0.032					
	남편양육참여도	0.027	0.0485					
2 자녀기대와의 관계	상수	4.21	1.66	231.76	25.89	0.775	0.631	0.951
	자녀정서적가치	-0.2553*	0.141			0.809	0.715	0.916
	자녀도구적가치	-0.2114***	0.0631					
	자녀 미래 기대	0.0258	0.073					
3 사회적 지원	상수	0.9102	0.9607	256.684	6.13			
	정서적 지원	-0.169	0.1397					
	정보적 지원	-0.0247	0.1071					
	여가적 지원	-0.0787	0.0919					
	도구적 지원	0.0685	0.1173					
4 양육 관련 변인	상수	-4.2275	1.975	249.666	6.06	1.067	1.013	1.123
	양육스타일	0.0647	0.0586					
	양육지식	-0.0106	0.0613					
	양육스트레스	0.0648*	0.0263					
5 어머니 관련변인	상수	-6.5109	2.4252	246.316	11.03*			
	자기효능감	0.1036	0.0744					
	자아존중감	0.1304	0.0808					
	우울	0.0726	0.0451					
6 전체설명 변수투입	상수	0.333	0.8334	199.01	25.23***	1.091	1.031	1.154
	부부갈등	0.0868**	0.0289			0.762	0.671	0.865
	자녀도구적가치	-0.2719***	0.0647					

*$p < 0.05$, **$p < 0.01$, ***$p < 0.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의 후속출산계획에 한자녀 취업모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차이와 부모됨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자녀 취업모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모의 후속출산계획에서 한자녀 취업모와 배우자의 학력 및 직업, 가구 월평균 소득, 자녀의 성별과 후속출산계획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배우자와 취업모 본인의 연

령과 후속출산계획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배우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후속자녀를 낳겠다는 비율이 낳지 않겠다는 비율보다 많았으나, 낳겠다는 비율만을 보았을 때는 배우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후속자녀를 낳겠다는 비율이 점차 낮아졌다. 반면 모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후속출산을 생각하는 비율이 크게 감소하며, 35세 이상의 경우 후속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낳겠다는 응답보다 많아지기 시작했다.

둘째, 한자녀 취업모의 부모됨이 모의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에 따르면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자녀를 낳지 않고, 자녀에 대한 기대가 낮을수록 후속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후속출산을 계획하지 않았다. 영향력의 정도를 보면 자녀의 정서적 가치가 감소할 때 후속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확률은 23% 증가하고, 도구적 가치가 낮을 때 19% 증가, 어머니의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 자녀를 낳지 않을 확률은 9% 증가, 부부갈등이 높을 때 약 8%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에서 나타난 부모 연령이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추가 자녀계획이 부모의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부모 연령 모두에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후속자녀계획에 대한 의사가 줄어들고 있다는 신혜원, 최평섭, 김의준(2009)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월 평균 소득에 따른 모의 후속출산계획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는 가정의 경제수준이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승은(2009)과 한은주, 박정윤(2006)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부모의 연령을 보면 후속출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아이 출산 연령이 낮아져야 하고, 이는 결혼연령이 지금보다 빨라져야 한다는 사실과 연관될 수 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는 이유는 선행연구들에서 보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진출의 증가, 남성의 경제적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 등으로 결혼과 가족 결합에 따른 긍정적인 가치관에 변화가 왔기 때문이다. 각각의 이유들을 차례로 논의해 보면, 우선 여성의 사회경제적 진출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따라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여성의 사회경제 생활에 부담이 되거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제 육아휴직, 육아수당, 단축근무제, 수유실 및 어린이집 설치 등의 방안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이들 방안이 유자녀 기혼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으로 간주되기보다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제도로 안착되어야 한다. 즉, 여성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가족적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제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와 기업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남성의 고용불안정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 연령이 상승되고 있다. 남성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IMF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남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완전 고용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신혜원, 최평섭, 김의준, 2009).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남성의 사회적·직업적 생애 주기를 반영한 직업교육의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즉 연령대별, 직무군별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직업군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정책 실현으로 남성의 지속적인 경제적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부모됨의 특성 중 자녀가치관과 부부 갈등이 후속출산계획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됨의 특성인 자녀에 대한 가치가 후속출산계획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이정원(2009), 한은주, 박정윤(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또 다른 부모됨인 부부갈등과 같은 결혼 관련 가치관과 요인 등이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미란(2000)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한자녀 취업모의 후속출산을 유도하고 자극하기 위해서는 자녀 및 결혼 가치관을 출산에 유리하게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연주 등(2009)이 언급한 바와 같이 자녀에 대한 인식이 과거 도구적 가치로 여겨진 투자재의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부모의 애정뿐 아니라 경제적인 소비까지 모두 투여되는 소비재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부모들에게 다자녀 보다는 소수의 자녀를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후속 출산을 유도하려면 자녀에 대한 인식을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 · 가족적 측면에서 그 가치를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차승은(2009)과 이정원(2009)은 경제적인 측면이 추가 자녀를 가지는 데 중요한 방해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한자녀 어머니가 둘째 자녀를 결정하는 요인은 부모가 되어서 느끼는 정서적인 보람과 기쁨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가정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모의 후속출산계획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가정의 경제적 능력이 두 번째 자녀의 출산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은 하나 부모로서의 행복감, 성취감, 자녀에 대한 애정 등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자녀 취업모 가정에서 추가 자녀를 희망하고 실제 출산할 수 있도록 자녀의 소중함, 자녀로부터 얻는 기쁨, 사랑의 실천, 자녀와의 유대관계를 통한 생애의 연속적 경험 등을 통해 긍정적인 자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부모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으로는 부모-자녀 관계 정립하기 및 역할 이해하기, 자녀와의 대화하기 기술, 부모로서의 정체성 확립하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부부갈등을 포함하여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부부 모두 양육의 일차적인 주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자녀 양육 교육 프로그램과 양육지원 시스템을 통해 자녀 육아로 인한 부부갈등을 최소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육아지원 교육 및 정책 방안들이 여성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보다는 부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자녀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됨의 중요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 부모됨과 다른 변인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거쳐서 출산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가는 분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됨과 다른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및 경로 탐색을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강희경(1998).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 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논문편: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민주(2010). 저출산 유인요소와 대응정책에 관한 분석. **한국정책학회, 19**(2), 105-129.

김형준(2008).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부모권과 노동권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23**(1), 111-134.

김홍배, 최준석, 오동훈(2008). 여성의 출산율 결정요인과 출산장려정책의 방향. **지역연구, 24**(1), 23-37.

나유미, 김미경(2010). 우리나라 저출산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9**(5), 817-833.

류연규(2005). 복지국가의 아동양육지원 제도가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2**1(3), 233-261.

박수미(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 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4.

신효영, 방은령(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대한가정학회지, 47**(10), 123-136.

신혜원, 최평섭, 김의준(2009). 서울시 추가자녀 출산계획에 미치는 가구 특성의 요인분석. **서울도시연구, 10**(2), 33-47.

안은진, 최효진, 유계숙(2007). 성별과 세대에 따른 부모됨의 동기 및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1-13

염팽배, 김경미.(2011). 군집분석을 통한 저출산 원인 및 정책수요 도출. **경제연구, 29**(1), 163-190.

유계숙(2009).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 2007년 출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169-189.

이미란(2009). 출산 장려 정책이 미혼 여성의 출산 양육 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4**(3), 75-96.

이미란(2010). 기혼 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5**(1), 99-121.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2007). 주요국가의 아동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프랑스, 핀란드,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23**(4), 167-192.

이삼식, 정윤선, 김희경, 최은영, 박세경, 조남훈, 신인철, 도세록, 조숙경, 강주희(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이연주, 김재일(2009). 출산장려정책의 인지도와 직종에 따른 효과적 출산장려정책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35**(1), 61-90.

이용복, 이소희(2004). 보육서비스가 기혼여성의 출산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9**(2), 95-113.

이정원(2009).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 결정 경로 분석: 가치관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연구회, 40**(1), 323-351.

이재경, 조영미, 이은아, 유정미(2005). 유럽의 저출산 관리 정책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한국여성학, 21**(3), 133-166.

이재림, 옥선화(2001).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가족생활시간, 사회적 지원, 자녀의 지원과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5), 49-63.

장동호(2009). 출산율에 대한 지역 간 비교분석: 덴마크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4), 163-188.

정성호(2010).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사회과학연구, 49**(1), 69-90.

정현숙(2004). “결혼 전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91-101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현숙(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13-21.

조성연(2007). 대학생의 부모됨의 동기에 대한 부모됨의 의미와 감정이입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219-233.

차승은(2008). 부모역할의 보상/비용과 둘째 자녀 출산계획. **사회복지정책, 33**(6), 111-134.

한은주, 박정윤(2006). 한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둘째 자녀의 출산 선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11), 1-12.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 Short Form(PSI-SF). Charlottesville, VA: Pediatric Psychology Press.

Bornstein, M. H., Tamis-LeMonde, C. S., Pascual, L., Haynes, M. O., Painter, K. M., Galperin, C. Z., & Pecheux, M. G.(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Chung, H.(2004). Application and revi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for use of Korean couples. *Psychological Reports, 95*, 1015-1022.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Kessler, R. C., Andrew, G., Cople, L. J., Hiripi, E., Mroczea, D. K., Normand, S.-L. T., Walters, E. E., & Zaslavsky, A.(2002). Short screening scales to monitor population prevalences and trends in nonspecific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ical Medicine, 32*(6), 959-976.

Halman, L.(2001). The European values study 1999: A third wave-source book of the 1999/2000 European Values Study Surveys.

MacPhee, D.(2002). Knowledge of infant development inventory: Survey of child care experiences & manual(2nd ed.) Unpublished manuscript, Colorado State University.

Mainieri, T.(2006).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child development supplement: User guide for CDS-Ⅱ.

Mann, M. B., & Thornberg, K. R.(1987). Guilt of working women with infants and toddlers in day car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27*, 451-464.

Markman, H., Stanley, S., & Blumberg, S.(2001). Fighting for your marriage:

Positive steps for preventing divorce and preserving a lasting love, new & revis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Matysiak, A.(2009). Employment first, then childbearing: women's strategy in post-socialist Poland. *Population Studies, 63*(3), 253-276.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2007).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 on "Home education" 2005: Survey on children and the family. Saitama, Japan: Author.

Rosenberg, Morris.(198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revised edition.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 논문접수 2012년 3월 31일 / 수정본 접수 5월 30일 / 게재 승인 6월 18일

· 교신저자: 이진화, 숭의여자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이메일 jinwhayu@sewc.ac.kr

Abstract

The Differences in Offspring Birth Plan of Working Mothers with One Child and its Effects on Parenthood

Jinwha Lee Hana Cho HyeYoon, Choi

The current study aimed to analyze offspring birth plan according to different variables of working mothers with one child and its effects on parenthood. The research sample was from the second data of 2nd year Korea Child Panel from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 total of 296 mothers were selected for the study. To analyze the data, chi-square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using the SAS 9.0 computer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offspring birth plan to have a second child depended on the age of the parents. Second, conflicts between a couple, the emotional and instrumental value of having a child, the stress of upbringing had an effect on their second child birth planning. In conclusion, various aspects such as parent education programs were considered to improve the fertility rate.

Key words: parenthood, second childbirth plan, fertility